

목포시 꼼꼼한 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채무조정 중·고용위기 등 추가 위기 가구 포착 정보 44종으로 확대 복지 멤버십·이동 상담실 운영...주소지 달라도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목포시가 올해 '복지멤버십'과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 등을 운영하며 복지 사각지대 줄이기에 나섰다.

시는 올해 위기 가구 포착을 위한 정보 종류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금융 연체금액 범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추가되는 위기 가구 관리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여부와 수도·가스요금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정보, 채무조정 중, 고용위기 정보 등 5종이다.

또 실제 사는 곳이 주민등록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 누락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보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위기 가구를 정확히 발굴하고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목포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굴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기정보를 보유한 대상자들을 별도 추출하고 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목포시는 올해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운영한다.

이 제도는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먼저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곳에서 살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목포시 희망복지지원팀과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사례를 맞춤형 통합 관리하며 공격적 발굴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마켓 등 민간자



목포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에서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목포시 제공>

원 연계를 강화했다.

시 희망복지지원팀과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매달 두 차례 '찾아가는 복지 이동 상담실'을 운영

하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상담실은 매달 둘째 주·넷째 주 금요일에 동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상담 이후에는 기초생활보장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공격적지원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민간지원 등을 동원해 대상별·상황별로 전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에 부딪친 주민에게는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도움이 손길을 주고 있다.

긴급수리, 안전점검, 주거개선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에게는 최고 150만원 이내 지원을 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 범주에서 벗어난 위기가정은 가구별로 4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12건 4억1000만여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대상과 가구당 지원금액을 늘리면서 예산이 6억7000만원으로 63.4% 증액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찾아가는 복지 행정으로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인구 소멸시대 기초자치단체 신안군의 도전과 비전 모색

지방자치연구소 주관 세미나 혁신사례 공유하고 전략 제시



박우량 신안군수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공무원과 군민 등 '인구소멸시대 기초자치단체의 도전과 비전 혁신' 세미나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최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지방자치연구소(대표 이영애)가 주관하는 '인구소멸시대 기초자치단체의 도전과 비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신안군의회의 의장 및 의원, 사회단체장, 공무원과 군민 등 200명이 참석해 인구소멸의 위기 속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신안군의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해 신안군의 정책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으로 시작해 ▲인구소멸시대 신안군의 도전과 비전 ▲작은섬 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1년과 향후과제 등 3개 부문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구소멸, 정부 및 신안군 비전'을 주제로 지방자치연구소 이영애 대표를 비롯한 4명의 패널과 공무원,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다양한 제언을 통해 신안군 균형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의 장이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제각기 창의와 혁신을 통해 시대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신안군의 사례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목포 개인택시 조합 모바일 앱 호출 확대 협약

목포지역 개인택시들이 모바일 앱 호출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목포시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주식회사 지제이티모빌리티와 '가맹 택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천수 목포지부장과 김주환 지제이티모빌리티(가맹본부) 대표가 참석했다.

목포에서는 이날 현재 법인택시 577대와 개인택시 923대 등 1500대여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인 70여 대와 개인 200여 대 등이 모바일 앱 호출 가맹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모바일 앱 유료 호출 서비스 가맹 개인택시를 지속해서 늘릴 방침이다.

유료 앱 호출 서비스가 확대되면 시내서비스의 잇따른 운행 중단으로 불편을 겪어온 목포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두 기관은 기대하



협약을 맺은 서천수(왼쪽) 지부장과 김주환 대표.

고 있다.

김주환 지제이티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이 택시운송업에 대한 목포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목포시지부와 더 나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완도군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학교' 운영

6월까지 12개 읍·면 순회...청년·여성·장애인 등 대상 교육도



완도군이 개최한 '주민 참여 예산학교'에서 주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 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

완도군이 주민 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개 읍·면을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6일 보길면을 시작으로, 이달 금일읍, 약산면, 완도읍, 노화읍, 군외면 등을 찾아가는다.

주민 참여 예산학교는 6월까지 이어진다.

주민자치회와 이장단, 지역사회 단체 등이 수업 들으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이해하고 사업 발굴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방법을 익힌다.

주민 참여 예산 현황을 살피고, 주민 참여 예산 우수 사례 등도 공유한다.

군은 지역별 외에도 청소년, 청년, 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대상별로도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완도군은 지난해 주민 참여 예산으로 20건 사업에 12억원을 반영했다. 금일을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점안시설 설치, 금당면 문답월 천년의 숲 조성 등이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포함됐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총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경영난 휴관 '진도아리랑 시네마' 직영

98석 규모...26일부터 재개관

경영난을 겪으며 휴관했던 '진도아리랑 시네마' (사진)를 진도군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작은 영화관인 '진도아리랑 시네마' 문을 다시 연다고 24일 밝혔다.

진도아리랑 시네마는 코로나19 사태 3년 동안 관람객이 크게 줄어드는 등 경영난을 겪어 수탁 사업자가 지난달 1일부터 휴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는 5만8000명이 극장을 찾았지만, 이듬해에는 81.5% 급감한 1만733명만 관람했다.

진도군은 영화관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영화 상영업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지난 2017년 7월 문을 연 진도아리랑 시네마는

문화시설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립됐다.

진도군에는 지난 1978년 육천극장이 폐관한 이후 39년 동안 영화관이 없어, 주민들은 영화를 보러 목포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진도아리랑 시네마는 전체 98석 규모로, 1관(3D 전용)은 59석, 2관(2D 전용)은 39석을 갖췄다.

성인 기준 관람료는 2D 7000원, 3D 9000원으로, 대도시 영화 관람료의 50% 수준이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일반 성인은 1000원 할인된 6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

상영관마다 1일 4~5회씩, 모두 10회 안팎 상영한다.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남군, 中 이우시와 교류협력 강화...농산물 수출 확대

양해각서 체결...무역·관광 등 교류



중국 이우시 방문한 명현관(왼쪽 다섯번째) 해남군수 등 일행이 이우시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이 세계 최대 도매시장을 가진 중국 이우시와 교류협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명현관 해남군수 등은 중국 저장성 이우시를 방문해 주요 경제 현장을 돌아보고 해남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24일 귀국했다.

명 군수는 지난 23일 예팡루이 이우시장, 왕웨이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제무역, 농업, 관광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서는 예팡루이 시장이 농어업 유통 교류 강화와 지자체 및 기업, 단체의 교류 확대, 청년들의 이우시 상업활동 지원 등을 약속에서 제안했다.

명 군수는 "세계적 소비재 생산도시이자 무역도

시인 이우시와 고급 농산물·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해남군이 미래발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경제적 파트너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팡루이 이우시장은 "농산물을 시작으로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 확대를 기대하며 해남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해남 유기농산물의 수출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경제협력의 청사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1년간 월 10만원

다음달 7일까지 모집

영암군이 청년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만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 일정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취업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고사·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